“광주 하면 맛·인권·평화도시 생각나…랜드마크 있었으면”

광주시, 지역 거주 외국인 초청 ‘정책 소풍’ …“복합쇼핑몰·관광 체험 장소 부족” 지적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광주에 랜드마크와 복합쇼핑몰 등 즐길 장소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관광 체험 장소 부족과 음식점 메뉴판·관광지·관공서의 영어 설명 부족 등도 지적했다.

21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강기정 광주시장의 21번째 ‘정책소풍’에 참석한 광주 거주 외국인들은 광주의 멋과 맛, 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 가감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외지인 눈으로 바라본 광주의 멋·맛·의’라는 주제로 열렸고, 참석자들은 정착 계기와 광주살이의 장단점, 볼거리와 먹거리, 5·18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우선 “광주는 정이 많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라며 광주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광주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5·18 민주화운동과 금남로로 상징되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무등산, 맛있는 음식 등을 꼽았다.

반면, 가족·친구가 방문했을 때 소개할 장소나 관광지, 복합쇼핑몰 등 즐길 곳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다수 나왔다.

특히, 맛의 고장이라고 하는 광주에 미슐랭 식당조차 없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고, 제철 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거나 정기적인 음식대전을 통해 맛의 본고장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프랑스 출신으로 전라도 홍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레아 모로씨는 “광주의 주요 여행 홍보 채널에 영문 표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관공서나 관광지에 영문 표기와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광주의 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제안했다.

‘워킹홀리데이’로 광주를 찾아 카페에서 일하는 일본인 하타지 카에데씨는 “광주는 대중교통 등 물가가 저렴하고, 외국인에게 편견이 없어 생활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는 도시”라며 “복합쇼핑몰이나 쇼핑거리가 생기면 주말 나들이용으로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몽골에서 귀화한 조세화씨도 “한국 병원에서 근무한 지 13년 됐다. 의료관광 외국 손님이 오면 도시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먹자골목으로 자주 안내한다”며 “하지만 장기간 머물 숙소나 도시 랜드마크로 여길 만한 관광지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페드로 김씨는 “광주와 전라도에 좋은 영향을 주고, 홍보대사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외국·외지인이 광주에 많은데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에 머문 광주가 아닌 최근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광주의 모습을 기대해본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포용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보물 같은 문화·관광·역사 자원이 풍부하지만, 장소들을 엮는 스토리텔링이나 시민이 누릴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서 말 구슬’을 잘 꿰어 재미와 다름은 있어도 차별은 없는, 모두가 살기 좋은 ‘보배 같은’ 도시 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5·18공법단체·특전사 공개 토론하자”

오월정신지키기 대책위 제안 “공동선언식 문제 해결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선언식’을 둘러싸고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5·18공법단체·특전사 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12일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와 비공개 만남을 열고 공동선언식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으나, 서로의 입장을 반복할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들과 함께 공동선언식에 관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대책위는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이 잇따라 공론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도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와 별개로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 것도 제안했다.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드러난 5·18의 당면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뜻에서 여는 토론회다.

다만 대책위는 이 토론회에 두 공법단체를 제외하고 광주시·광주시의회·5·18재단·대책위 4개 단체만 참가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동선언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두 공법단체가 토론에 동참할 경우 대책위와의 갈등만 부각되고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기훈 대책위 대변인은 “대책위 활동이 두 공법단체와의 갈등으로만 비춰지곤 하는데, 이를 넘어서 근본적인 오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 열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은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민·학부모, 교육격차·지역소멸 위기감

도교육청, 정책 방향 설문

전남 도민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교육력보다는 교육격차나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달 전남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전남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37.0%)과 ‘교육격차 해소’(32.8%)를 꼽았다. 이어 ‘지역소멸 위기 대응’(32.3%), ‘교육력 제고’(17.8%)가 뒤를 이었다.

교육격차 해소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교육력 제고보다 우선순위로 선택했는데, 수도권이나 도시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관심 있는 과제로는 ‘독서인문교육 활성화’(38.6%)를 선택했다. 이어 진로진학 직업교육 지원체제 구축(29.5%), 기후변화 환경교육(28.5%), 다문화가정 학생 강점 강화교육(28.3%),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협의 체제 구축(16.1%) 순이다.

민선 4기 전남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말에는 ‘만족한다’(46.9%)는 긍정 평가가 ‘만족하지 않는다’(30.0%)는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창포물에 머리 감으면요 음력 5월 5일 단오날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예로부터 단오에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창포 특유의 향기로 나쁜 귀신을 쫓고, 머리에 윤기가 난다고 믿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

광주 북구 22일

지역 청년들의 창업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 북구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북구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전국 유명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 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유명 로컬 크리에이터를 초대해 이들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창업토크 등으로 구성됐다.

‘어서어서(경주)’, ‘10년후 그라운드(광주)’, ‘와일드웨이브(부산)’, ‘파르품 삼각(서울)’, ‘댄싱사이더(충주)’ 등 5개 로컬 업체 대표들이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공 사례를 제시하는 자리가 메인 행사다

이외에도 오후 4시 50분부터 1시간 30분간 로컬 브랜드 상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회와 시식회도 열린다. 북구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로컬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 만든 다섯가지 메뉴도 만나볼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24일 광주서 릴레이 걷기대회

‘이태원 참사’ 광주지역 유가족들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협의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릴레이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지역 시민들에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제정돼야 함을 알리고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이 행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앞에서 행사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들의 발언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릴레이 걷기는 광주시 서구 시청에서 출발해 각 자치구를 돌면서 광주 전역을 걷는 식으로 실시된다. 희생자의 유가족 6명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여한다.

우선 다음달 15일까지 걷기대회 구간이 확정돼있지만, 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의 진전이 없을 때에는 참사 1주기인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걷기 릴레이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